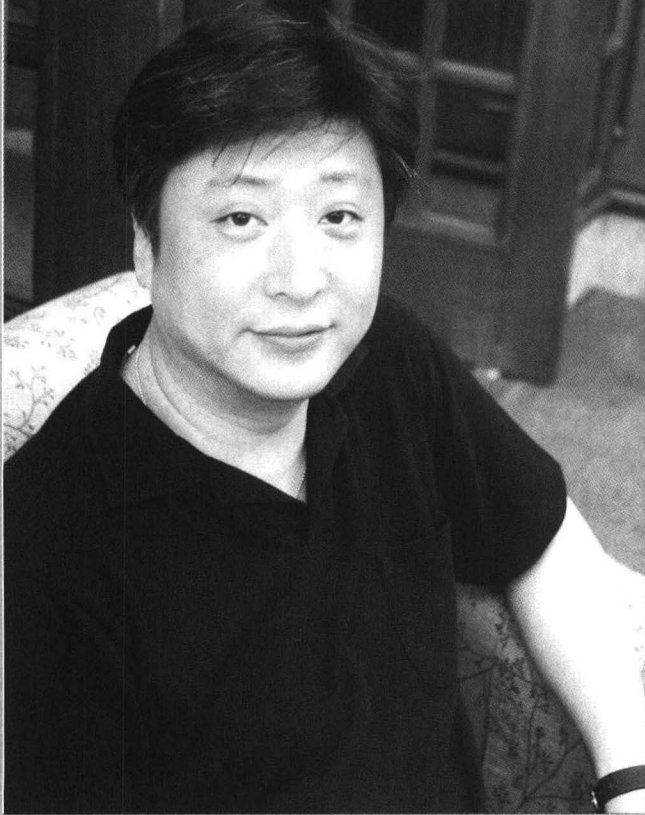


“한국 콘텐츠 글로벌화 앞당기겠다”

뉴욕, 서울, 동경, 북경 아우르는 랜덤하우스아시아의 고공비행 ‘아시아공동의 집’ 만들어 함께 잘 사는 게 목표



지난 7월 11일 이제 취임한 지 40일이 조금 지난 에릭 양(42)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를 만났다. 양 대표는 초대 대표인 지영석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의 자리에 올랐다. 2003년에 생긴 랜덤하우스고단사와 2004년에 생긴 랜덤하우스중앙,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을 조율하게 된다. 서울 조선포털에서 만난 양 대표는 인터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과 뉴욕 본사, 일본, 중국을 바삐 오가느라 한 달 평균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채 열흘이 되지 않는다. 다음날은 또 북경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에릭양 에이전시 대표'에서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 양 대표를 만나 글로벌출판의 비전과 아시아에서 랜덤하우스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한다.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3, 4년 전부터 계속 제의가 있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출판사 경영을 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오래 고민하다가 전임자인 지영석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내가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책임감과 만족감이 있었다. 다국적 출판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너무 큰 책임을 맡은 것 같아 걱정이다.

랜덤하우스아시아 대표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랜덤하우스아시아는 일종의 '홀딩 컴퍼니'다. 그 안에서 내 기본적인 역할은 아시아, 즉 일본, 한국, 중국의 출판시장구조와 경쟁적인 부분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 가능성을 파악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이 혹은 새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문화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이들 세 나라로부터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특히 랜덤하우스는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직까지 중국에 어떤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아직 그 어떤 고민도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나에게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국내 출판계는 다국적 출판기업의 국내 진출을 걱정하기도 한다. 출판시장에 자본의 논리가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교/베네티스만이 추구하는 바는 북클럽Book Club 비즈니스를 통한 새로운 독자 발굴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런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의 지속적인 발굴은 우리나라 독서인구의 증진과 더불어 출판계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두 거대 출판회사가 합작법인으로 벌이는 사업은 국내 출판계와 경쟁관계라기보단 파트너로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국적 출판회사 랜덤하우스의 한국 진출 역시 국내 출판사와 파트너가 되어, 선진출판 및 경영기법을 적용, 한국 출판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이란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러한 다국적 출판의 국내 진출은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랜덤하우스의 한 부분으로서 랜덤하우스중앙을 볼 게 아니라(물론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 놓여 있는 랜덤하우스중앙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랜덤하우스고 단사와 랜덤하우스중앙은 정말 많이 다르다. 또한 랜덤하우스아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랜덤하우스중앙은 이미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 있다. 오히려 랜덤하우스가 배울 점이 있다.

국내 출판계가 랜덤하우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랜덤하우스의 피터 올슨(Peter Olson) 회장의 정의에 따르면 'Random'은 글자 그대로 자유롭고, 구속을 받지 않는 콘텐츠를, 'House'는 그 콘텐츠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콘텐츠는 편집자들의 편집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그런 자유로운 마인드의 에디터 육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세일즈와 관리부분이 편집자와 함께 가면서, 편집자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것이 랜덤하우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출판산업의 이익을 출판계에 재투자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굳이 국내 출판사와의 다른 점을 꼽는다면, 경영전문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지만, 그 경영인은 출판을 통해서 육성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한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주빈국 등 국내 출판계는 지금 그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기에 국내 출판계가 세계화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출판계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출판계도 끊임없이 변해 왔다. 전집이나 학습지 출판사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단행본 시장이 출판의 꽃으로 대접받는다. 물론 단행본출판사들이 너무 어깨에 힘을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모든 출판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출판은 발전하고 있다. 단지 지금은 한국출판의 세계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을 뿐이다. 물론 도전 앞에 우리가 작아 보이고 움츠러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시작은 거기부터다. 하나둘 몸으로 부딪쳐가면 세계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랜덤하우스 이사회에 참석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이사회 풍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출판시장이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고, 한국출판계도 잘하면 그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우리 주위만 돌아봐도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7위 정도 된다. 거기다 중국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다는 것밖에 뭐라 말할 수 없다. 물론 시장에서 주도적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국내출판계의 잠재력이랄까,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유통 및 자본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인력, 즉 여러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편집인들이다. 이들은 출판사에서 훈련을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켜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우리나라의 출판계를 이끌어갈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랜덤하우스아시아가 동북아시아의 출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일본, 대만, 동남아에 붙고 있는 한류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 우리의 가치 있는 콘텐츠를 작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점에서 랜덤하우스아시아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점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더 큰 목적인 콘텐츠 교류에 있어서 '나비와 벌' 같은 역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 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 회장인 지영석 회장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활성화시켜 교류를 하게 한다면 아시아 공동의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의 집에는 랜덤하우스중앙이나 랜덤하우스고단사만 사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출판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랜덤하우스아시아가 나서서 '소를 끌고 아시아라는 밭을 일구는 것'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단지 공부하는 단계다. 6개월 정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이번 인터뷰 취재에 응한 것도 이런 감이 있다. 일부에선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나의 경력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은 경력이나 장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출판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